

국내 개발 UAM 기체 비행 성공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7월 16일 「2026 드론·UAM 박람회」에서 연기되었던 국내 개발 ‘K-UAM 비행 쇼케이스’를 재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.
 - 당초 개막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비행 시연은 연기되었으나, 충분한 점검*을 거쳐 이날 다시 시연을 진행하였다. 기체는 약 5m 상공에서 약 3분간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계획된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.
- * UAM팀코리아 참여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(RAPA)에서 도심전파환경에 대한 전파 환경조사 및 항공기 통신 컨설팅 등을 지원
- 이번 시연은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UAM 기체의 비행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실제 환경에서 확인한 실증으로, 향후 초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축적에 의미가 있다.
- 시제기(시험 제작항공기)를 개발한 삼보모터스그룹 관계자는 “실증과정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,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과 보완을 거쳐 계획한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”며,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비행 시험을 통해 기체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“새로운 항공기술은 반복적인 실증과 검증을 통해 완성된다.”며, “이번 시연은 국내 UAM 기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었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정부도 초기 상용화 제도 구축, 조종사 양성 등 상용화 기반을 차질없이 마련하고,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기훈 (044-201-4197)
		담당자	사무관 류윤하 (044-201-4306)
		담당자	주무관 박세희 (044-201-4281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